

음행한 꼬끼리는 싸움터에 나가도 화살을 조금도 두려워 않듯이 언제나 지성으로 밀렵 지키어 계 없는 세상 사람 모두 구하리.
(法句經·상품 351절)

東大新聞

발행	인간	신	국	주
주	간	조	립	체
편	국	보	영	인
집	집	사	관	관
행	행	서	심	심
판	판	서	사	사
면	면	서	서	서

출판사: 동대신문사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2267-8577)
FAX: (02)279-1270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 (241-4132)

제 1047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단-10
1955.10.13 제 3종우편번호(가)법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0년(단기4323년)5월2일 (수요일) 【1】

총학 "5월 총파업투쟁" 돌입

9일 반민자당 투쟁-18일 광주총회 사수

메이데이 101주년 **본교 7개 단대 18개과 동맹휴업**

현대중공업 노조탄압 규탄

현대중공업 폭력탄압 규탄 및 세계노동절 101주년 기념 범대학인권의대회가 세계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1시 학생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부총학생회장 이진현(경영4)군의 사회로 진행된 동맹휴업상황보고, 현충

노조와 KIS노조투쟁보고, 동아인투쟁지침 결의문 낭독 순으로 펼쳐졌다. 이날 각 단대별 투쟁결의 및 동맹휴업결의보고에서 법과대학생회장 허병철(법학4)군은 11개 단대 파도위를 거쳐 동맹휴업을 결의한 상황을 보고했다. 또 민자당장당일까지의 동

맹투쟁으로 나서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동맹휴업에 들어간 각 단대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법대=인철·2년, 선학·2년 △문과대=국문·2년, 독문·1·2·3년, 사학전학단, 일문·1·3년, 철학1년 △법대=전학년 △사과대=정외2년, 사회·1·2년 △노동대=입학2년 △공과대=건축공학 2·3·4년, 산공·화공·토공·전기·식공 등 5개과 1년, △예대=연극영화1년.

학생대표자 회의

4·5일 투쟁기간 May-day 동맹파업결의, 학자투쟁의, 즉체일정'등을 안건으로한 학생대표자회의가 지난달27일 오후 5시 29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학생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된 5월 투쟁기간은 △5월1일=메이데이 대총결의와 동맹휴업결의 △3~6일=준계농투(민자당본질폭로, 전능과 결함), 민자당장당과 사총련 동맹휴업제안 △7-9일=반민자당투쟁, 9일총파업준비 △10-15일=평주순례준비(평주총회의의대응) △15-20일=학생정기총회, 평주순례 △21-25일=총대준비(축주위구성) △20-6월1일=대동계 등이다. 한편 정기학생총회는 오는 15일 예정으로 총노선결의, 사업내용 평가등의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노동자 결의대회

현대중공업 노조폭력탄압규탄 및 세계노동절경쟁위를 위한 수도권지역 노동자결의대회가 전노협주최로 지난달 29일 오후 2시 노동자 학생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본교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오후2시 전노협비상총회위에서 결정된 △전국총파업 돌입 △문선대 조직의 울산 파견등의 내용을 결의하는 한편 "경찰병력 울산에서 즉각 철수하는 것, 단병호 위원장등 구속노동자 석방할

대구시 경찰국 점거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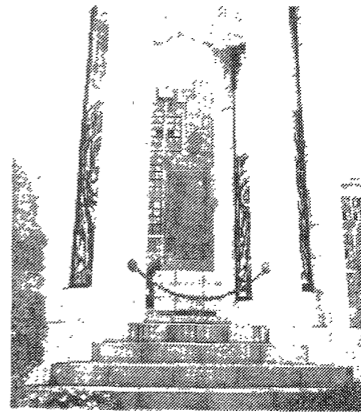
지난30일 오전 10시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연합(이하 대경총련)산하 "민자당타도와 전노협시수를 위한 청년학생 결사대"가 대구직할시 경찰국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전10시경 대경총련 소속 호위대 학생 2백여명과 함께 정문내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에 진입한 본교 '파소 야합분회와 전노협시수를 위한 학생투쟁본부'소속의 권용수(철학4)군등 학생80명은 본관8층 옥상과 철탑에 올라가 "현대중공업투쟁승리로 노동운동단합 분쇄하지" "민중생존살해하고 노동운동단합하는 민자당독재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3시간여동안 점거농성을 벌였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

5월2일은 부처님이 오신 날이다. 오늘에 있어 그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일까? 혹자는 그의 출현을 '조용한 폭풍'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인류역사에 끼친 영향은 어떤 세속적인 혁명이나 정복의 전쟁이나 쿠데타에도 비견할 수 없으니 만큼 지대했다. 부처님의 오심은 절로 '소리없는 혁명'이었다. 진리(tathata)는 사공을 초월하여 영원한 것이나, 그의 오심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진리와 같이 오신 이(如來 tathagata)'라고 부른다. 그것은 영원과 시간, 열반과 윤회, 佛과 중생의 만남이다.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 우리들은 삶의 긍정적 가치와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열반(평화)과 해탈(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것을 따르려자 원을 세우

민중동맹국 개교 84년 응모

오는 8일 기념식 : 총 62명에게 장기간속 표창



구한말 국인이 기울게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민중사학의 웅대한 기치를 내걸고 역사의 산증인으로 자리잡아온 본교가 오는 8일로 개교 84주년을 맞는다. 본교 '개교 84주년 기념식'이 오는 8일 오전11시 申國柱총장 서리를 비롯한 학생, 교직원, 동문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삼귀의례로 시작하여 정각원장 李錫山(선학)님의 발원문 봉독, 朴聖浩(행정학) 기획조정실장의 학교연혁보고, 장기근속자 공로패 및 기념품수여, 총장 기념사, 吳錫圖이사장고사, 鄭在禧총장 피장 축사, 고교학생의 순으로 진행되며 식후에는 동국대 5층 로비에서 자축연을 갖는다. 이날 공로패 수상 장기간속자는 다음과 같다. <80년 근속=△鄭元武(행정학) △安熙明(정보관리학) △20년 근속=△金鎔典(철학) △金福鼎(영문학) △金在功(전자공학) △申鉉鎔(화학공학) △李襄主(산업공학) △金興瑞(농학) △金錫根(농업경제학) △崔世和(국어교육) △邢錫柱(지리교육) △金鍾玉(의료인실장) △張用赫(학부부장) △黃永珠(포항병원 사무국장) △宋齋子(학적과장) △任英淳(지역개발대학원 교학부장) △吳鍾浩(관계계장) △합상출(총무과) △용호중(총무과) △형영재(청풍기사) <10년 근속=△金英培(국문학) △金正梅(영문학) △金繁雄(행정학) △李勝榮(무역학) △鄭龍根(회계학) △金相鍾(경영학) △李來秀(경주 국문학) △申鉉鎔(경주영문학) △黃根錫(경주인문학) △方正愛(경주기초학부) △羅富策(경주미술학) △黃潤植(경주회계학) △金容植(전자계산원교과과장) △최창효(총무계장) △임병수(중앙도서관장고일남계장) △김철석(불대교과계장) △조원생(대학원교과계장) △신봉근(경상대 교과계장) △장금숙(중앙도서관) △최찬호(경주총무계장) △김상윤(경주경리계장) △박경우(경주교과계장) △장근두(총무과) △이병우(총무과) △김정수(총무과) △신영소(총무과) △리범식(총무과) △김기욱(총무과) △박창근(총무과) △박장훈(총무과) △정성규(총무과) △정성호(경주학계계장) △신태용(경주후북계계장) △최철환(경주도서관사서계장) △김상주(경주총무과) △안신진(경주총무과) △이무성(경주총무과) △이경희(경주총무과) △매기열(태슬링 감독) △김기동(총무과)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사회의 갖가지 갈등과 대립과 투쟁들은 모질고 단단한 에고들이 서로 부딪칠 때 일어나는 소음이다. 그 에고들이 소멸될 때 진정한 '우리가 있을 것이고, 더불어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있는 淨土도 실현될 것'이라고 상상해본다. 문득 고개를 들고 먼 산을 바라본다. 계절의 여왕답게 5월의 春光은 화사하고 밝고 아름답다. 이런 자연을 두고 어디서 따로 극락정토를 구하겠는가? 그러나 그 속에 사는 인간의 마음이 담욕과 증오, 미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이 빛어내는 세계는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자유의 풍경을 수 밖에 없다. 李芝洙



"경악" 지난 28일 새벽 울산 현대중공업 파업현지에 헬기, 군함등의 공권력을 투입, 노조원들이 설치했던 바리케이트를 무너뜨리고 전경들이 진입해 장악하고 있다. (사진제공=고대신문사)

야간교육 정상화 방안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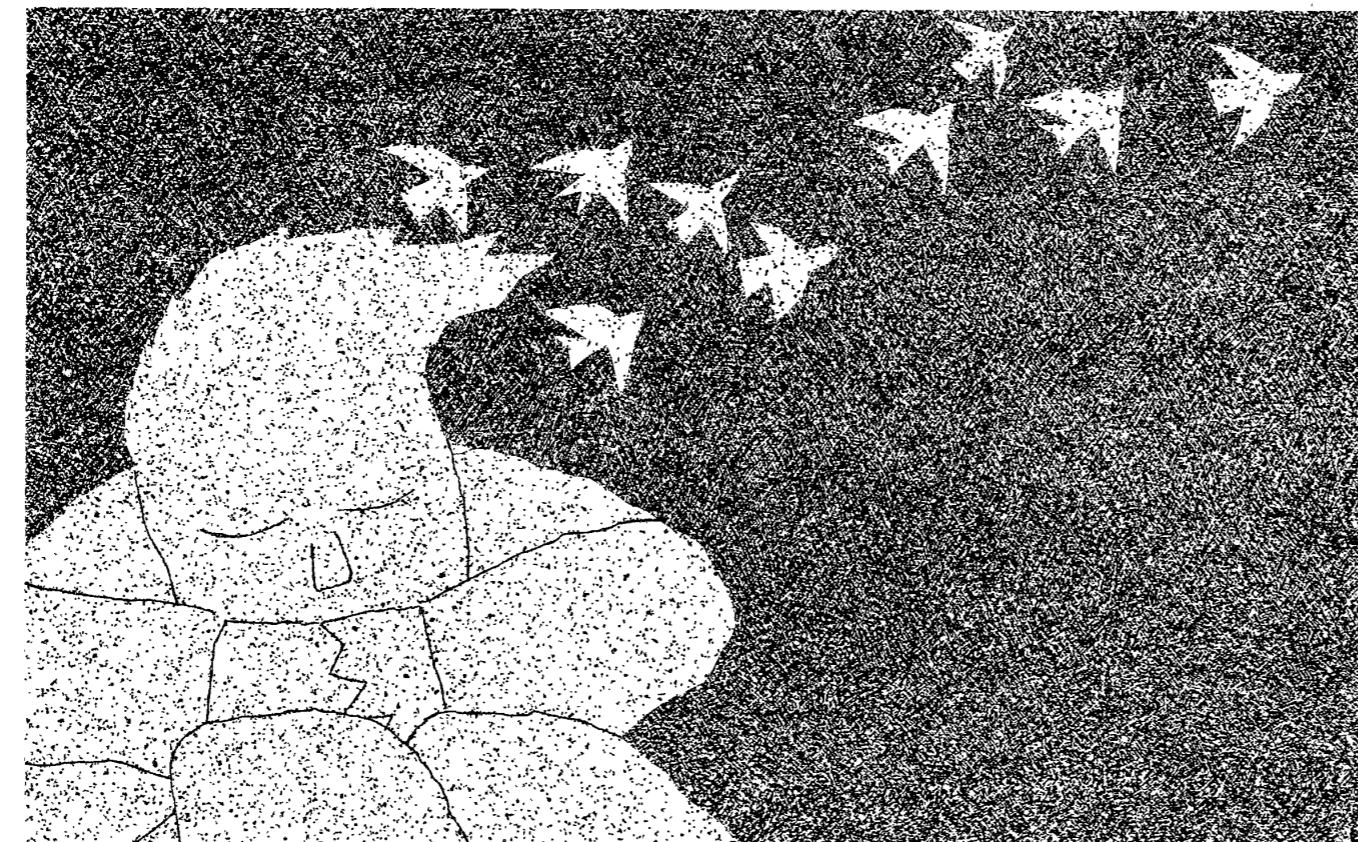
무원칙한 야간강좌 폐지는 고려돼야

야간강좌 존재문제를 놓고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오던 학교당국과 학생측간의 마찰이 金英喆이부대학장의 오해성 발언으로 더욱 심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6월 야간강좌폐지론이 대두된 이후 올해 90학년도 야간강좌중 영문·전산·산공과 등 3개과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아 사실상 야간강좌 3개과가 폐지된 상태에서 야간강좌 학생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야간교육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던중 지난달 19일 야중 출범식에서 金英喆이부대학장이 한 발언에 야간강좌 총학생회가 해명을 요구, 이런 논란 반발의 계기가 되었다.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야중부 학생회장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또한 파도론회를 개최하여 金이부대학장의 해명요구와 문교부 인원조정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야간강좌 폐지에 대해 적극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金이부대학장은 현재까지 학생회측에 어떠한 의사표명조차 하지않고 있는 상태이다.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야중부 학생회장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또한 파도론회를 개최하여 金이부대학장의 해명요구와 문교부 인원조정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야간강좌 폐지에 대해 적극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대신문 40주년 기념/동국정신선양기획광고 7



가슴마다 높푸른 이상

땀뻘 꿈꾸어 걸려낸
맑은 꿈들.
뜨거우면 욕심을 털어내고
차가우면 미움을 버리면서
마침내 날아오른다. 그대 아니 우리가 이상.

서울사람 평양사람 경성도 함경도
전라도 평안도 경기도 황해도사람
고향을 등져 고향을 찾는 젊음들이 솟구쳐 오른다.

남산위 소나무처럼
어머니 기도속 정한수처럼
푸르고 깨끗한 뜻과 기개,
햇살 물살, 종소리 바람소리, 별빛 눈빛되어
퍼져 나간다.

社說

현중탄압 매개로 전국민 일어설때

현대중공업과 KES에 공권력이 투입됨으로써 이젠 국민 모두가 현중세를 바로보고 투쟁의 현장에 함께 뛰어들 때가 되었다.

높이 84m의 플리악트레인위에 올라가 동성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노사분규역제'라는 미명아래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투신하려 하는 동지들을 서로 감싸고 지켜주고 있지만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노조가 유린되고 정부에 의해 이렇게 탄압을 받는다면 우리전원은 죽을수는 있으나 물러설수는 없다는 결의로 기쁨과 산소탱크, 이스퀼렌가 스톱을 우리몸에 안기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죽음을 불사한 플리악트레인위 노조원들의 절규는 1백만청년학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공권력의 투입은 현대중공업을 무너뜨리고 현대자동차의 단체교섭체결까지 압을 하게 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노조를 파멸로 이끌고 이땅의 민중들을 짓밟을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파업은 신성한 노동현장을 사수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고, 정부에 노동운동탄압지지를 촉구하며 연행노동자들을 구출하는것에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대정공, 현대자동차, 현대중합복제등을 비롯한 계열사가 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에 들어 갔지만 플리악트레인위에서 물도 없이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땅으로 내리오게할 직접적 힘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KES도 30일 재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진정한 민주화에 박차를 하고 있다. 일 단은 KES사태를 통해 노정권의 '힘의우위' 전략을 간파하고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KES장악음모, 민족민주운동에서 차지한 부 분별전분운동조직강화등의 내용을 조속히 파악하고 연대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에서는 메이테이에 즈음해 무차별한 공권력투입으로 노동자의 투쟁을 탄압하고 국민들에게는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노사분규때문이라는 간교한 술책을 구사 하고있다. 거대한 정권의 이런 작태는 현대 중공업전업직전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다.

이미 단발호위원장, 권용복, 우기원씨등은 공권력철수, 구속자석방 등을 외치며 옥중에서, 경찰서에서 단식투쟁등을 전개하고 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최상이요, 피 할수 있는 싸움은 피하는 것이 차선이지만 지금의 싸움은 결코 이런 성질의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물론 전국민이 단결해 87년 6월항쟁의 승리를 재현할 시기인 것이다.

동맹파업으로 투쟁에 동참하자

현대중공업과 KES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면서 학생들의 연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본가에게 찬대받고 사회적으로 찬대받는 노동자이지만 이세상의 참된 주인은 우리"라며 파업에 들어간 현대중공업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정권의 방종장악음모에 맞선 KES연전노동자들의 제재거부투쟁은 정당하다.

한초부터 불어닥친 '제2의 공안정국'은 이미 그 성격이 전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5공화기음모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탄압의 파도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이 전국을 돌아치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민중적 연대도 그들이 공고히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엄중한 정세와 민중의 긴박한 요구에 부응하며 애국적투쟁의 대열에 나서는 학생들의 자세는 진지하기만하다.

동맹파업이 그것이다.

물론 동맹파업이 가지는 확약상의 손실과 시간상의 손해를 우리는 알고있다. 그러나, 신식민지조국에서 한반도 대항구 자유로웠던 때는 없었으며 그것은 학원자주투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가.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학원자주투쟁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학자주의 정치투쟁적 성격이었고 그것은 곧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민중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함을 뜻하는 것이다.

동맹파업은 단지 며칠간 수업을 안하고 지내다라든지 학업의 손실이 있다라는 차이는 아니다.

동맹파업은 진정한 식민주의하의 남한사회 구조를 밝히려고 올바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청년학생들의 진리를 찾기위한 몸부림이며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불사하며 싸웠던 애국투쟁시절의 계승인 것이다.

이러하기에 우리는 학생들의 동맹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동맹파업은 학생회의 민주적인 구조화함을 위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만한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학생대중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현실을 수렴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힘있는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광주학생운동과 4.19 그리고 유신사건등 대,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남한의 학생운동을 다시한번 다짐하여 조국이 위급할때 정의의 편에 서야 할것이다.

그것이 이땅 한반도의 통일과 저 파소우 리를 같이않는 청년학생의 저임무이자 역할이다.

청년학생이여 / 민중을 위한 고연의 칼날 위에 서라 / 그것이 학생의 일이다.

사형집행은 "일시적 안정제"

민생치안 어떻게 해결하나



李相赫 (변호사·한국사형제지우동맹 의회장)



권정권에 심대한 실망과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다.

이와같이 사형제도 존폐여부에 관한 논란이 우리사회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제정신청을 기각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는 최근 민생치안확립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

나 사형제도가 진정한 사회질서 유지의 효과적인 수단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형제도가 일반인에 대한 위력으로 범죄를 억제하는데 실효성이 있었다는 결과는 역사적·과학적으로 입증된바도 없으며 오히려 세계각국의 통계는 사형의 존치되고 있는 오늘날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8월4일 에도 법무부는 이면과 같은 명분으로 사형수 7명을 집행하였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형의 위헌력을 근거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주장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우리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흔히 형벌 목적의 하나로 응보를 꼽는바 사형에 관한 국민의 여론은 이성적인 범죄 가치 판단에 기초하기 보다는 감정적 즉흥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며 일반인의 응보적 범감정은 소박하고 단순한 복수수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

한을 순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황폐화시킬 따름이다.

또한, 재판은 인간이 행하는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오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오만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영원히 구제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사형은 때때로 정치적인 반대자를 탄압하고 제거하는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를 볼수 있는바 세계각국의 역사는 위정자들이 사형과 같은 극악처방으로 사회혼란에 대한 일시적인 진정효과를 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성에서 범의역제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사형에 의한 위하에 의존하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감겨져 처벌받는다라는 관념이 일반 국민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과학적 수사 및 선진화된 사법운영에 기대해야 할 것이며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정도는 그녀의 문화수준과 비례하는 만큼 사형제도의 폐지운동과 더불어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제1종인 헌법소원에 상당한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형집행 불구하고 범죄율은 더욱늘어 과학적 수사와 도덕성부터 확립돼야

구하고 강력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사형의 위력(威嚇力)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

은 설득력이 없으며 타인의 범죄충동을 억제시키기 위해 국가가 한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것이 되어 비도덕적이고 반이성적인 것으로서

나 응보욕구는 악을 악으로 되 갚음으로써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김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형은 국민의 범

과 더불어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제1종인 헌법소원에 상당한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약기자석

경주도서관 강의실로 전락

기초과학관 건립은 해결의 실마리

남한 사회 현실속에서 대학은 역사의 발전에 있어 진보적 학문·사상을 연구하고, 이를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보편적 진리에 접근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때 대학의 도서관은 자유로운 학문·사상을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주캠퍼스 도서관은 자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7천 동국인의 하나된 답은 '아니다'일 것이다.

현 경주 도서관의 문제점은 첫째, 도서관 장서가 오래되고 낡은(급변하는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것들이어서 대다수 학과에서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대출하여 볼 수 없는데 있다. 전공 도서 하나 제대로 없는 도서관,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내어오기 위해 필요한 사회 과학도서는 거의 찾아볼 수 조차 없는 도서관. 이것이 7천 동국인에게 다가서는 도서관의 첫번째 문제점이다.

둘째, 열람실의 부족이다. 이는 도서관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연유한다. 조경학과 전산학과 고미미술학과등이 도서관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열람실의 부족은 자연과 학대 기초 과학관이 건립 될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도서관 공간을 분해

하며 학우들의 요구를 형식적으로 해결하려는 학원 당국의 안일한 자세도 지적 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현 경주캠퍼스 도서관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이의 근본적 해결은 도서관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기초 과학관 건립으로 해결 가능하다.

또한 도서관 이용 주제인 학우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강유미 (자연대 가정교육학과)

쉬는땅 놀릴 필요 없다

부족한 산책로 남산에서 찾자

'라스베가스'라는 이름은 동약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던 이름일 것이다.

위치는 대충 명진관 뒤쪽에 서부터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리키는데 주로 야밤에 데이트족들이 아(?)한 행동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우들에게는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은 편이다.

보통 대학의 특징은 독특한 문화와 공간을 들 수 있다. 우리학교의 예만 보더라도 만해평정, 동아로, 사대 앞의 풀비니 등산 뒤편에 모나코등을 들 수 있는데 타대학과 비교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라스베가스도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학교의 명소를 꼽힐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

그렇지 않아도 캠퍼스가 협소하기 때문에 남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장점을 한껏 살려 남산을 동국대학교의 산책로화(化)시키자는 것이다.

학교가 삭막하다고 불만만 터트리지 말고 좀 더 학교를 사랑하고 애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마음에 맞는 친구끼리, 연인끼리 거니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낭만적인 전설 한가지쯤은 생겨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라스베가스를 많이 이용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윤보림 (사범대 수학교육)

여학우부터 선봉에 나서자

범모이기 등 작은실천부터 시작돼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경과 평화를 외치던 노대우정권이 노·사합의문 이행을 요구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을 백책간두 벼랑으로 내몰더니, 오늘은 경남 양산군 하수구에서 신원미상의 20대 현대자동차 노조원의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현 정권의 탄압속에서 우리 노동형제들은 노대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울산에서 전국적 파업투쟁으로 '80년 5월' 광주항쟁을 혁명적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품고있는 동약의 여학우 여러분.

암암이 울려 앞을 밝히는 이야기는 거지기가 아님을 '89년 6·10항쟁 때 민·가·협 어머니들의 싸움속에서 검증한 바 있습니다.

복속 건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노동형제와 수없이 끌려가는 학우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의 큰 사랑을 하나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투쟁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굴러다니는 병을 함게 모으고, 동전 몇개라도 파업 지원금으로 내는 것은 현대우정권의 광란적인 탄압을 뚫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불씨가 모였을 때, 5월9일은 민자당 창당의 날이 아니라, 민자당 해체와 노대우정권을 타도하는 위대한 민중 새 시대의 신세벽을 연아오는 날입니다.

이제 투쟁하는 5월은 더욱 아름답질 것입니다.

제6대 총여학생회는 동약의 여학우 여러분과 작은 투쟁이라도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윤향 (문과대 국민윤리학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픈 말도 많이 있습니다.

동약기자석은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수·학생·직원, 모든 동국인은 동약기자석의 주인입니다.

(여론매체부)

東國漫評

임지성

◇오늘 이야기

노래하라 노동자여

메이데이의 축제와 투쟁을

1886년 5월 1일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1886년 미국 35만 노동자들의 외침속에서 피어난 1890년 이래의 메이데이는 전세계 노동자들이 공동요구·공동행동을 통해 단결과 진전을 과시하는 축제와 투쟁의 날로 기념되었다.

1946년 5월 1일

『들여라 민족의 노동자들이! 우렁차게 들려오는 메이데이의/시위대가 행진하는 발자국 소리...』

일제치하의 투쟁은 1946년 5월 1일, 해방공간에서 활화산으로 부활했다. 전평주최로 20만 노동자가 참여한 기념식장은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주장하는 깃발로 가득했다.

196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노동절이라는 이름마저 빼앗긴 채 노동자들의 자주성과 연대성을 상징하는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판례행사로 전락했다. 이후 노동운동사는 메이데이 실종의 역사로 비유되며 고도성장의 구호아래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맞겨되었다.

전노협건설원년 5월 1일

현대중공업 공권력투입 강제집행, KBS 방송 자주권유린, 전노협 와해해동, 노조상근자 임금 지급 금지판정등 민자당출범이후 우리사회는 더욱 자본가와 지배권력만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 속에서 맞는 1백주년 메이데이를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는 가는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다.

◇노동자의 날 1백주년 기념광고

서울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회

○... 사회주의권의 혁명적 구조재편의 과정에서 남...
 ○... 한사회의 변혁운동은 그 이론과 전망에 대한 재검...
 ○... 토를 심각히 요구받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개혁이...
 ○... 더이상 하나의 국제정세로서 외적요인의 위치를...
 ○... 지난것이나 남한변혁운동의 하나의 내적요인...
 ○...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번의 '신...
 ○... 데탕트와 조국통일'의 보론으로서 가지는 의미와...
 ○... 함께 동아내의 논의활성화를 위해 이시리즈를 드...
 ○...리고 싶다. 개혁의 쟁점과 논리를 그사회 내부의...
 ○...관점으로 명확히 하고 우리내부의 자주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되는 기초가 된다면 더말할나위 없는...
 ○...결과가 되리라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격려와 질...
 ○...책이 필요한 때마다. <편집자> ○

는 논문에서 페레스트로이카는 전 사회적 구조-소유관계와 경제적 메카니즘, 정치체제-의 개혁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치, 경제적 구조재편이 90년 2월의 중앙위원회, 3월의 최고회의에서 법률적 완성을 보고 있으며 내용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정치-경제적 구조재편은 고르바초프의 말대로 '혁명적'이다. 시장경제의 도입과 소유권의 다양화, 공산당 1당 독재의 폐기와 다당제하의 자유총선, 그리고 새로운 사교에 입각한

주요로 이해하던 종래의 방식을 극복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 자체가 당의 권력독점의 과오속에서 대중에게 설득력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주의 하에서 계급투쟁의 문제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형태로 보는 시각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사교'에 의한 세계의 규정과도 일련 관철되는 점이다. 하여튼 사회주의권의 정치적 구조재편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서 일당독재를 폐기하고 있으며, 사회

아니라 신용관계와 분배제도의 완전한 확립속에서 '사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시적 계획경제와 미시적 시장조절을 결합하거나 국가가 시장에 카니즘을 통해 기업의 자주성(독립채산제)을 강화하려는 현실적 제약상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자본과 기술수준의 도입을 한변으로 하고 있다. ③평화공존이론의 재문제 새로운 사교에 입각한 고르바초프의 '평화공존이론'의 기본특징은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과학기술혁명의 질적발전이 따른 생산력의 발전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세계적 규모로 확대시켰으며, 이는 어느 한 나라도 자신만의 고립적 역할을 용납하지 않는 상호의존관계를 형성시켰다는 것이다. 스탈린의 두개의 시장론이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간의 적대적인 양대경제체제의 투쟁과 상호작용이라는 세계경제의 규정이 폐기되고 세계경제의 보편적 법칙의 존재를 확인한다. 이러한 물질적 토대를 갖는 현대세계는 양체제의 적대적 대립의 산물인 핵

의는 그 최후의 단계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혁명의 조건에서 국가독점 자본주의는 장기적 발전의 과정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와같은 규정에 의해 고르바초프의 평화공존론은 기존의 평화공존을 위한 투쟁안에 포함되어 있던 방위력의 중장, 계급투쟁의 개념이 폐기된다. 즉, 계급투쟁은 소멸의 과정에 있기는 하나 과학기술의 혁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으며 양진영간의 모순은 전쟁을 포함하는 계급투쟁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계급투쟁 일반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내적인 적대적 모순의 발전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의 이행이라는 일방적인 과정은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일국적 차원의 계급투쟁의 발전과 세계적 규모의 평화구조 정착의 가능성이 제3세계 특히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결합되고 작용할 것인가이다.

I. 사회주의 구조재편의 의미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진행되어 왔던 사회주의권의 개혁은 그 속과 진행속도에 있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은 우리의 인식능력을 훨씬 넘어서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단지 사후 평가에 급급할 뿐이다. 더우기 그들의 변화가 단순한 해석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변혁운동의 실천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숙부주목으로 있었다. 그 실천의 문제는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사회주의권의 혁명적 구조재편은 우리의 변혁과정이나 변혁 이후의 전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기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우리의 운동은 과학적인 운동이론을 토대로 과학적인 사회체제의 구현을 목표로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동구권의 개혁 내용은 기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이론과 전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이 야기시키고 있는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이 가져오는, 우리 변혁운동을 규정하는 외적 요인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이다. 현재의 세계는 이미 국제정세의 문제를 단순한 외적요인으로서 볼 수 없게 한다. 이미 세계정세는 변혁운동을 규정하는 내적요인으로 전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권의 변혁이 야기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우리의 변혁운동도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곧, 변혁운동의 좌절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사회주의권의 혁명적 구조재편의 과정,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두번째 문제의식에서였다.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새롭게 시작되었던 신데탕트 국면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페레스트로이카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이는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이해가 하나의 단순한 '정책'의 차원으로 머물러있음을 말해준다. 이후 89년 11월부터 헝가리와 폴란드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재편의 소식을 접하고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닌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재편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특히 11월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사회주의의 정치, 경제적 구조재편의 문제로서 페레스트로이카를 바라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사회주의권의 구조재편이 우리변혁운동의 전망속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적 요인으로 등장했으며, 구조재편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단순한 이론적 접근 아닌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로 되어있는 것이다.

동구개혁, 국내정세의 내적요인으로 전화

기획시리즈에 들어가며

- ◇ 글씨는 차례
1. 페레스트로이카 총론
 2. 경제개혁의 쟁점과 논리
 3. 정치개혁의 쟁점과 논리
 4. 평화공존론의 쟁점과 논리
 5. 자주적인 대응전략



김형민 동대신문 편집장

경제개혁 소유-시장경제등 현실적인 분석필요 인민독재로서 일당독재폐기가 쟁점 정치개혁

1당 지배체제가 '공식적'으로 끝났으며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선거에 의해 자본주의 정부가 수립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개혁으로 야기된 정세의 변화 또한 엄정했다. 동·서독의 통일을 전망하지 않는 어떤 세계질서도 이제 현실성을 상실했으며 동·서독의 통일 이후의 세계질서가 귀추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정치-경제적 구조재편의 결과 동구권은 한국과 경제-정치적 관계개선을 요구해 이 노태우정권의 북방정책과 결합하여 동구 여러나라와의 수교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점차 남북한의 교차승인과 UN동시가입의 문제를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사회주의권의 구조재편이 우리변혁운동의 전망속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적 요인으로 등장했으며, 구조재편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단순한 이론적 접근 아닌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로 되어있는 것이다.

II. 사회주의 구조재편의 본질적 내용

고르바초프는 89년 11월26일자 '프라우다'지에 발표한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라

'평화공존론'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 이해하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권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칙이 아닌 '특수한 사례'로서 한정짓게 하고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은 단지 '수정주의'로 파악할 수도 있다. 정치-경제적 구조재편과 평화공존이론을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보자.

①정치적 구조재편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집중시키는 소비에트체제의 개혁이나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조재편에 관해서는 사상계론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조차 폐기하는 다당제의 인정이라는 정치적 다원주의로 표현되는 근본적 구조재편의 내용에 대한 것이다. 이는 곧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문제로 연결된다. 사회주의하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성격과 계급투쟁의 문제, 그리고 다당제의 문제는 정치적 구조재편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규정하고 있다. 소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역사적 과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다른 일면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민주

민주주의 역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구조재편의 결과, 비공산연립정부가 동구권 각 나라에 들어섰으며 한국의 수교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②경제적 구조재편의 문제

고르바초프는 지금까지 상품화폐경제에 대해 편협하게 사고했고 비판한다. 공장과 토지 등의 생산수단과 인간의 노동력을 계의 한 물질적 재화, 그리고 자제노동에 근거한 서비스 등은 상품으로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에 따른 소유관계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소유를 국가소유로 한정하는 것에 비판하여 협동조합적 소유가지를 사회적 소유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협동조합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확대시키는 나라이 있는가 하면, 현재동구권의 경제적 구조의 내용은 협동조합적 소유의 확대과정에서 있다. 소련도 공극적으로 모든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가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면서 현재 경제전략노선에서 협동조합적 소유를 확대시키고 있다. 시장경제의 문제는 거시적 계획의 국가통제를 전제로 미시경제적 시장메카니즘의 확립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과 화폐관계는 폐지되는 것이

없게 현대세계의 상호의존성과 통일의 신화, 둘째, 보편적 전인민의 가치 우선, 셋째, 계급투쟁에 대한 규정의 변화로 요약된다. 현대세계의 상호의존성과 통일성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 핵의 결과는 인류문명 전체의 운명 파괴의 가능성이고 그에 대한 인식은 전인민적 가치를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사교'는 계급투쟁에 대한 규정의 변화를 갖는다.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로서 계급투

쟁을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치체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9차 전당대회에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7월(1988)총회에서 결정되었다. 개혁은 기본적으로 네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선거제도를 더 한층 민주화하는 것 ②레닌적 개념에 따라 사회의정치적 전위로서의 소련공산당을 당기관과 소비에트기관으로 기능을 구분하는 것 ③국가권력의 재편과 개선 ④지방자치의 역할과 의의를 뚜렷이 향상시키는 것

현단계 페레스트로이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체제의 개혁에 대한 규정은 소련공산당 제19차 전국회의(1988년 6-7월)에서 제기되었다. 이규정은 기존의 정치체제가 개인숭배의 영향, 오랜 기간동안 뿌리내린 지령적-행정책 지도방법, 특히 정제기에 널리 퍼진 관료주의와 보수주의 등의 영향으로 애국되어 페레스트로이카가 목표로 하는 근본적 변화에 조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처음 3년동안의 페레스트로이카의정면은 사회를 한층 더 쇄신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적 가치의 우선은 이 투쟁의 전략과 전술의 많은 원칙적인 문제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일련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문제들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곤란한 것은 정치에서의 전인류적 이익과 계급적 이익의 올바른, 조화로운 결합의 문제이다.

③독립채산제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독립채산제는 노동집단이나 관리와 노동조직을 이용하여 자주적으로 기업을 운영할수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관심을 갖는것에 있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적 소유의 기반이사회주의 생산관계에 기초하여 가능하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시도를 띄고 있다.

④전인류적 가치

전인류적 가치의 우선은 새로운 정치적 사교의 근본적 명제의 하나이다. 실제의 정치에서 전인류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명제를 전면내내세우게 된 것은 노동자계급과 모든 민족해방투쟁의 이론과 실천에서의 일대전환이다. 전인류

III. 변혁운동의 전망과 관련하여

이미 지적했듯이 사회주의권의 구조재편의 문제는 우리 변혁운동의 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다. 그것은 우리가 배운 지식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변혁의 과정에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이다. 혹시 우리가 과학적 이론체제로 알고 있는 것이 '교조'의 다른 면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정교조가 아닌 과학적 이론체제는 현재의 동구사회주의의 구조재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곧 우리 변혁운동의 궁극적인 성공을 약속한다.

소련 및 동구권의 정치-경제적 구조재편의 내용과 평화공존이론을 과학적 이론체제와 끊임없이 비교 검토하고 하나의 원리를 추출해낼 때, 우리의 상황에 맞는 변혁이론도 완성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권의 구조재편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원천에 따른 올바른 해석이 가능해질 때, 우리 변혁운동의 올바른 이론과 전망도 가능해질 것이다.

김형민 <민족민주운동연구소 국제분과>

오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조약돌같은 행복이 넘쳐나는 생활— 바로 이 생활속에 휴먼테크가 살아 있습니다. 생활속의 작은 행복에서 생각속의 미래행복까지, 휴먼테크의 목표는 인간행복입니다.

휴먼테크
삼성전자

현장르포 노동해방의 성지 '모란공원묘역'을 찾아

자신을 불살라 해방 앞당긴 열사의 터

묘비마다 '노동해방' 머리띠 죽지않은 열사의 혼 서려 전태일열사등 민주-노동열사 16인의 묘소 위치해 있어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 정의가 넘치고 사랑이 있어야 하며 평화와 번영이 있다. 동지여 끝까지 투쟁하라/미안하다.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먼저가서”

—노동자 박영진의 묘 '죽음에 임박하여'—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의 투쟁이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노동해방을 위해, 이땅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싸우다 숨져간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경기도 마석의 모란공원 '민주-노동열사 묘역'을 찾았다.

울산 현대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깃발이 되는 것을 알고있다는 듯 하늘은 갯빛구름을 낮게 드리우며 간간히 가랑비를 뿌려대기도 하는 날이었다.

흔히 M-T의 장소로 많이 찾는 마석에서 시내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있는 모란공원은 그날의 투쟁을 반영이라고 하듯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묘역을 맞이하고 있었다.

모란공원입구에서 어렵지 않게 안내판과 민주열사묘역이라는 비석을 찾을 수 있었다. 참배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산불조심'이라 쓰여진 민주열사가 죽임의회의 플래카드만이 색이 바랜 채 걸려 있었다. “이곳은 민주투쟁과 민주화를 이

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친 선열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십시오”라는 묘역안내판의 글귀 밑으로 민주노동열사들의 이름이 이어져 있다.

전태일, 김진수, 김경숙, 박영진, 정낙현, 문송년, 성완화, 송철승, 김

판이었다. 안내판을 뒤로하고 열사들이 묻힌 묘를 찾아 나섰다. 열사들의 묘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으나 찾기에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노동해방열사, 민주노동열사들의 선명한 글귀와 노-동-해-방이라는

삼백만 근로자대표 전태일열사의 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죽음이 있어 여기 한평생 이들을 일으켜 세우나니 아아 전태일/ 우리 민중의 고난의 운명속에 피로 아로 새겨진 불멸의 이름이여. 1948년 8월26일 대구의 한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시절부터 낮은 도회지의 길거리를 그들로서 그들로 옮겨다니며 신문팔이, 잡팔이, 구두닦이, 리어가 뒤밀이로 허기진 밑바닥 삶을 이어가다가... 노동자의 정춘과 생명의 건강을 잃어가는 지옥과 같은 현실을 보았다. ... 이 폭탄과 같은 죽음이 사람과 사람의 억눌린 가슴을 뚫고서 저 숨막히는 분단독재의 형틀에 묶여있던 노동운동의 오랜 침묵을 마침내 깨...

—추모비문중에서—

묘지 관리인에 따르면 민주-노동열사 묘역이 이곳으로 정해진 이유는 전태일열사의 묘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묘역중앙에 위치한 전태일열사묘를 가운데로 양옆에 박영진열사와 최정길열사의 묘가 있었고 그 왼쪽



◇노동해방의 성지 모란공원, 지금의 탄압을 열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중수, 조정식, 최중철, 박정철, 박재전, 고정희, 그리고 이곳에 안장된 지 얼마 안된듯 메트로로 쓰여진 김중하, 이계식열사. 수많은 노동자들이 조국해방, 노동해방의 전선에서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최전방에서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죽어갔음을 알 수 있는 안내

머리띠가 묘비마다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현장에서 투쟁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싸우고 있는 울산의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숙연하게 목도를 울리고 하나씩 묘비에 적힌 자랑스런 열사들의 발자취를 새겨 내려 갔다.

“2시 50분 현재 중로에서는 노동자 학생 7천여명이 도로를 점거, 경찰차를 불태우고 파출소를 박살냈습니다.”

“전노협중앙위에서는 전국적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새벽에 함께 길을 안내하던 노점상이저씨가 '87년에 노점상을 하다 그만두고 지금은 스스로 권리를 찾고자 나섰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무척 자신감에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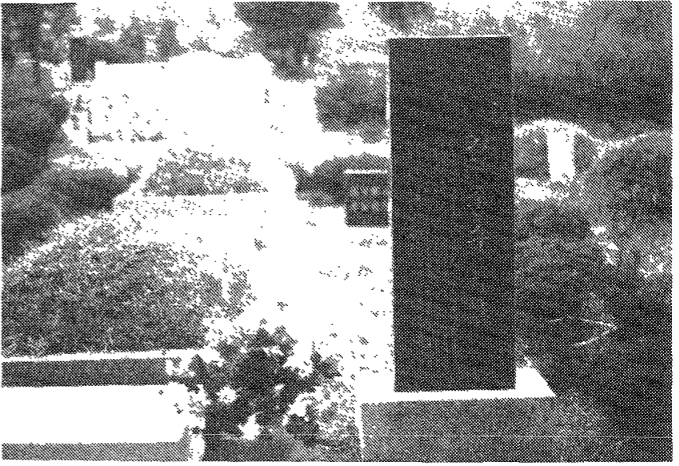
있었어요”라고 말하며 이 학생은 집회때 마다 보이는 김판과는 아주머니의 얘기를 전했다. “김판을 팔기위해서 학교에 들어다 잡혀 새벽에야 풀려났다”고하는 아주머니는 먹고살기위한 장사도 마음대로 못하게한다고

경찰을 원망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싸움과 단성사 앞 파출소소격투의 소식이 집회도중에 전해지자 ‘밖으로 나가 싸우자’, ‘도로로 나가자’는 함성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노동자와 어깨를 메고 중문으로 가두를 나가는 학생들 모습은 쑥스러움 없이 웃고 있는 모습이였다.

다향관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할 때 처음보는 학생들과 웃으며 반찬을 나눠먹는 그들의 행동에서 노동자의 건강한 모습을 보았다 고 한 학생은 전했다. 집회가 끝난 후 학생회관 앞에는 울산소식을 알리는 긴급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우리 노동자들의 사회적 천대와 우리의 비애에 울분을 느끼고 급기가 투신하려는 동지들을 서로가 서로를 감싸안으며 자제시켰고 있습니다.”

〈남철우 記者〉



◇눈을 부릅뜨고 누운 열사들의 한맺힌 두 눈을 감길 날은 언제일까.

지 끝까지 투쟁해주십시오” —경동산업 김중하열사의 묘지 탁 말

열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다. 전태일열사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던 소박한 삶의 절실한 요구에서 승리의 주제로 우뚝서가는 노동해방열사들의 목소리는 강렬해지고 있었다.

동료의 복직투쟁중 회사측의 탄압에 맞서 분신한 성완희 열사, 사방 조사부장으로 파업도중 추락 사망한 송철승열사, 무노동 부임금철폐 등을 외치며 분신한 김경숙 열사등 동료의 목숨이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크레인위에서 ‘투신하겠다’며 부당한 구속노동자석방과 공권력철폐를 요구하는 현중노조를 통해 쏟아져 내렸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헛된 물음을 던지면서도 민주주의의 나무는 파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되새길 수 밖에 없었다. 전태일 열사의 처절한 외침속의 뜨거운 죽음이후 투쟁은 수많은 열사들을 모셔야 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死地에서 나올 수 있게 하니, 당당히 주인으로서 투쟁에 많은 연대를 해내지 못한 것이다.

이곳 모란공원에 열사로 묻히지 못하고 남중독으로 진폐증으로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들. 다른곳에 묻힌 노동해방 열사들. 이들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기자가 목도를 울리는 동안 가슴에 활날이 깎이는 듯한 아픔이 저려 오듯, 열사들은 갔지만 결코 죽지 않았던 것이다.

“노태우정권에 이름 불살라 경고한다. 법질서 확립과 거리질서확립이라는 구실로... 생활의 터전을 짓밟았으며... 참을수 없는 분노로 이름 불살라. ‘법’, 법이란 물처럼 기는 것이다. 이 형태가 법이다. 나의 동지들이여 이 순간을 생각하라”

—이재식 빈민해방열사 묘비문—

법대로를 수십년 연방했다는 현대약력제회장 정세영, 산업평화를 외치는 노정권, 그들이 노동열사들의 함성을 피해 도망갈 곳은 어디인가. 〈유권준 記者〉

긴급투고 골리앗 크레인으로부터 온 긴급호소

“타격한다면 투신할 각오입니다”

투신하려는 동료 끌어안으며 투쟁 다짐

○... 현대중공업투쟁이 장기화되... ○
○... 여기면서 울산에서의 속보가... ○
○...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
○... 골리앗 크레인에서 농성하고... ○
○... 있는 노동자들이 울산에 파견... ○
○... 된 기자들에게 보낸 편지이... ○
○... 다... ○
○... (편지자)... ○
골리앗스 위에서 오늘도 진실
을 전하려 노력하는 기자본게
사측의 단협체제에 대한 사과(노조단협 101조 외거), 그리고 고소 고발위하를 위한 2만여 현중노조원들의 순박하고 정당한 요구에 사측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순박하고 너무나 정당한이다. 노사의 조화를 위해 사측이 고소고발한 조합원 5명의 고소고발 위하, 단체협약에 의거 상호성실교섭을 해야하는 바이를 어긴 사측이 이에대한 조항에 사죄하면 전담입니다.

회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정부의 권세가 높으면 얼마나 높기에 2만여 조합원과 5만여 가족을 파란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을까요. 우리는 고소고발 취하를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순박한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이 단호하다는 것도 전해주시요. 우리 웃으며 땅에서 만날 수 있을 가원입니다. 언젠가는 골리앗을 공개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현안 문제가 대화로써 해결 되도록요 골리앗으로 타격을 가한다면 저희 사측대중 투신조 투신을 결할 것입니다. 수고 하십시오. 골리앗의 사무국장의 전원

“노동해방의 선봉에선 현중노조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지금으로부터 103년전 미국의 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산화하였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를 처형하라. 가난과 불행 속에서 착취당하며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만 임금노동자들의 운명을 없애 버릴 수 있다면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일순간 하나의 불꽃을 꺼뜨릴 수는 있겠지만 잠시 후에는 당신들의 앞과 뒤 여기저기 도처에서 성난 불길의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땅 속에서 타오르는 들불이다 / 당신들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바로 당신들이 서 있는 땅이 불길에 휩싸일 것이다.” —오거스트 스파이츠(1886년 5월1일 '8시간 노동제 추진' 시위 전개 1887년 11월11일 처형)

이렇게 우리 선배 노동투사들의 처절한 피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May Day이다. 지난 1월22일 '전노협간섭'이 시작되던 바로 그 시기에 발표된 3당야합 선언 이후 노태우정권은 민중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전면화 하였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구속동지 고소·고발 취하, 단체협약 성실 이행'이라는 현중노조의 투쟁에 대한 무력적 탄압은 강행되었다. 이것은 비단 현중노조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112신고에 의한 노조탄압, 노동법 개정, KBS공권력 투입등으로 이어진 노태우파소정권의 장기집권모가 노골화되어 나타난 전체민중운동세력에 대한 선전고고인 것이다.

이런 시기에 동국대학교 언론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에서는 지금의 현중노조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전노협 비상중앙위원회의 전국적 총파업투쟁 결의에 뜨거운 동지애로 찬사를 보낸다.

울산에서 전국으로
전민중적 연대투쟁 노태우정권 끝장내자!
동국대학교 언론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
(동대신문사, DUBS, 교지편집위원회, Dongguk Post)

서구입맛 수입으로 갈곳없는 우리음식

'먹거리문화' 현실을 살펴본다

옛날 늘 굶주림의 시대에 살던 우리조상들의 소원은 '흰쌀밥에 고깃국'을 배부르게 먹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가 마치 전설속의 이야기로 들릴만큼이나 지금은 먹을 것으로 부러워 소원을 이야기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배고픔에 허덕이며 청소년시절을 보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바로 우리 부모님세대에만도 존재했다. 우리는 어렸을 적 밥상에서 투정을 부리다가 부모님의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로 시작하는 그 옛

날을 보았다.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가 아닌 '어떻게 먹고있느냐' 혹은 '어떤 생각으로 먹고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한 예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케익'의 경우를 보자. 요즘의 생일잔치는 의례 케익과 '해피버스테이...'로 시작된다. 이에 반해 우리의 전통 생일잔치 음식은 어떤였을까?

대표적인 것으로 백일남에 1백사탐과 나누어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여 쪼렷던 백설기, 아이들에게 들어있는 '살'을 없애주기 살아가는데 있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고 하여 들때부터 열살때까지



날 생활전반의 '서구화'가 바뀐 생활속에서의 다소 '편리함' 이상은 아닐지 모르겠다. 그러나 간편하고 단순함을 찾는 우리의 의식에 혹 '남의맛이 커보인다'라는 무분별한 선호사상이 자리잡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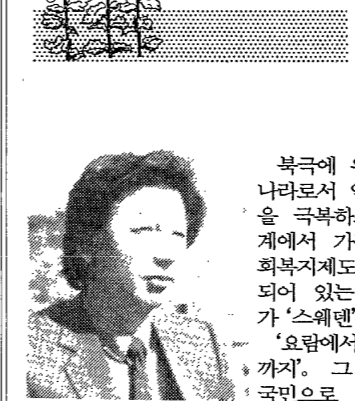
거리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외국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곳에 앉아 정통일본 맛 불란사맛을 음미하는 이들은 은연중이라도 더 품위있어 보이고 더 맛있게 느껴지는 '맛'을 '우리보다 더 좋은 문화'를 가진 나라로 착각할지 모른다. 또한 대학가에 흔한 것이 카페이고 경양식집인데 밤늦도록 펍과 들어찬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식사한'가 아니다. 집회에는 열심히 민중을 찾고 반미를 외치는 수많은 이들이 스테이크와 커피를 먹으면서 외국음식점에 위험당하는 우리농민을 진정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을 것인지 뒤돌아 보아야 할 때이다.

무엇을 먹느냐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이제 어떤가음으로 먹고 사느냐가 더 시급한 대안인 것 같다.

양담배의 한모금 연금속에 우리농민의 얼굴을 그려보려는 노력이, 우리의 땀나 김치하나라서 민족을 생각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 먹거리문화는 올바르게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먹거리문화의 올바른 정립'은 이제 오늘,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밥상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땀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최윤옥 기자)

달하나 강에 지상천국 스웨덴



朴 敎 秀
(고려대학교·임목육종)

북극에 위치한 나라로서 악조건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스웨덴'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나라 국민으로 일단 태어난 일생을 편안히 살 수 있으니 부러워하는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세계최초로 '林木'의 '선택적재배'에 의한 200년전 노력의 결과로 얻어져 목재수입에 의해 매년 국가재정의 80%를 충당하고 있는 '삼림자원부'라고 하면 귀를 의심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미스르리아를 뺀다면 '쇼콜라'를 선반하고 유전적으로 우수하다는 판정이 나면 '精製'라고 하여 좋은 씨앗을 따도듯 採種母樹로 선정한다. 전국토를 200개구로 나누어 매년 1/200의 면적을 신중모목으로 심어서 200년차부터는 매년 해당년만큼 목재를 벌채하고 伐木地를 새로히 造林하여 매년 保樹의으로 수확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일들을 했다.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았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분의 엘리트이고 지도층에 있다고 자처하는 인사들도 국제간에서 무더 '진단적' 사교방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는 독창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만 한다. 학문의 분야만 하더라도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와 교육이 생명이다. 교육을 통하여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성취도에 달하도록 동기유발을 시키고 지원해주는 일일 것이다.

'85~'86년도에는 선진국의 몇개국 연구실을 찾은 적이 있다. 특히 일본의 京都대학과 大阪대학의 의학부연구실을 찾은 적

이 있다. 앞으로의 세계는 農林 畜 水 醫藥 藥學分野에 관련된 생명공학이 21세기에 꽃을 피울 모양으로 최근에는 만능화되는 느낌이다. 반딧불의 발광인자가 담배에서 반딧불이 커지게 되었고, 담배와 감자, 토마토에서 인간유전자를 도입시켜 각종 의약품을 생산하며 Agrobacterium은 항생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도입과 응용으로 임목과 과수등의 내병성품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한편, 'Nitrogen Fixation'이란 생명공학 적방법으로 비료없이 재배되는 신종종들이 나와 모양이도 과학기술이 뒤지면 기술식민지→경제적주권→경제적민족이 어어진다. 식물자원 하더라도 금주에는 기초도가 지극히 높고 기초화물이 높으며 순식물성 필수아미노산과 순식물성 필수지방산으로 보아야 되는 식용작물이 빛을 볼 것 같다. 일본의 이러한 연구는 일본의 민간기업들이 출자해서 매년 천문학적인 수자의 연구비를 투입하며 '신기술개발'이 조직되어 5개분야의 과제를 전일본의 전문두뇌를 총동원하여 연구팀을 조직하는 데 전국의 대학인들이 연구원이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받아만 먹고 흉내만 내는 일만 하는 과학기술을 이제 세계를 주도하고자 최근에는 R&D자금을 미국의 2배인 6천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니 부럽지만 하겠다.

또한 일본은 '87년부터 미래식물개발에 도 착수하였다. 그것은 그 대상이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호도', '배', '하젤넛' 등으로 우리나라의 76%인 산지에 재배될 수 있고 인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으며 '농촌소득증대사업'과 '기업농업성'에도 안성맞춤이었고 '삼림자원'에 기여하리라 본다. 즉 최고의 목재와 최고의 식용작물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유실수산업에 의한 전국토의 조경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이기 신종종목의 육종에 성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모든 부처님의 기도와 하늘이 내리신 천재의 이 조국강산을 잘 다듬고 가꾸어서 오늘날의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건설이 완성될때 까지 노력하여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특히 일본의 京都대학과 大阪대학의 의학부연구실을 찾은 적

우리의 '참맛' 찾기는 민족자존심 살리는 길

날 배고웠던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저항할 수 없었던 밥상을 대한 정이 한두번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오늘날 먹거리는 우리보다 앞세우며 또 현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과질이 있어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이렇게 양과 질에 있어 풍족해진 현재 우리 '먹거리문화'현실은 어떠한가. 서양음식이 너무나 일반화 되어 있는 요즘세상에서 양식이나 먹는 것까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을런지

는 수수팔떡을 해먹었다. 곁으로 양은 충성이 썩여진 화려한 케익에는 보잘것 없었지만 바로 우리민족의 생활과 정신을 담고있는 우리먹거리 인 것이다.

이렇게 볼때 케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케익이 차려진 생일상이 썩어 좀더 근사해 보이고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 애국하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오염'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가 먹는 식품의 70%가 가공식품인데 여기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이 3백여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이로인해

우리의 몸은 알게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으며, 기형아 출생률이 전체 신생아 출생율의 6%나 되는 것에는 오염된 음식물의 원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명목하에 섭취하게 되는 인스턴트식품 또한 몸에 해로우면 해로웠던 적이 없는 것은 거의 없다. 게다가 이젠 우리의 먹거리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외국먹거리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 농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우리농산물은 90%가 훨씬넘게 수입되고 이제 이에 '양담배'까지 버젓이 한 몫을 들어 우리농민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다. 옛날에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몸과 그가 태어나 자란 대지는 나뉠수 없는 하나라는 뜻으로 그 땅에 태어난 사람은 자연의 이치에 맞게 그 땅에서 자라나 먹거리를 먹고 살아가게 되며 그럼으로 그 땅과 사람의 몸은 하나라는 것이다.

진부한 얘기같지만 실상은 맞는 말이다. 햄버거와 치즈와 커피를 좋아할 수 있고 또 많이 먹지만 김치와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를 좋아하는 한국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먹거리 뿐 아

오운은 그 이름이 나름대로 알려진 것에 비해 정과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오운의 삶과 활동을 통해서, 그의 삶과 사상이 어떻게 작품의 큰 힘으로 담겨져 제도권 미술과 싸워 나갔는지를 들여다 본다.

오운은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방식이 좀 특이하게, 미술계의 내부보다는 그 바깥 쪽에서 더 많은 독자를 갖고 있다. 특히 70년대 말 이후 기존의 공식계도와는 별개로 점차 폭넓게 자리잡기 시작한 '문화운동'의 판화에서 오운의 이름은 거의 하나의 상징과도 같아도 심비화되어 있기도 하다.

그는 독자가 주로 사회과학이나 민족문학, 勞動詩의 독자나 대학생의 독자, 마당파와 탈춤의 관객들에서 더 찾아볼 수 있는 작가이다.

그는 작품들을 분해 힘의 화가라고 할 수 있다. 힘이 있다는 것은 맥이 있다는 것이며 그 맥은 물론 민족의 맥이며 민족의 맥이다.

오운의 힘과 지혜는 상당히 '민중'-'민중미술'이나 '민중인양'이 할 때의 그 '민중'으로부터, 글자 그대로 사물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우리 시대의 어떤 예술가나 지식인 보다는 '민중적'인 보통사람들과 가까이 살았고 또 살을 알았던 사람이다.

상어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4) 민중의 모습 판화에 담은 '오운'



주변의 다른 어떤 예술가나 민중을 리적 지적인 보다는, 민중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민중에인적인 가락과 그 모양의 맥을 풍기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말할 것 없이, 이름없는 평민대중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감정과 감각을 곧 민중이라 한다면, 맥이란 다음이 그 생활 감정과 생활방식의 축적이요 그 계승일 것이다.

오운의 눈과 기량은 본질적으로 민중의 맥에 관련이 있고 또 도상적인 것이다. 오운의 유향

정직함과 비판적시각으로 민족의 맥 담아내

그는 '민중'-'민중미술'에 관한 입장을 '자기 자신이 우선 민중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나 '민중적'이라는 명목하에 민중 문화운동을 하는 식의 생각은 진짜 민중을 생각하면 오만한 발상이고 위협할 수 있다'라고

판한다. 여기서 또 그의 예술관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작품의 전면에 불수 있는 정직함과 소박함이며, 또한 풍자와 연민의 정, 그러면서도 예리한 비판적 시각, 바로 그것이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오운이 작품의 골격이 되는 것도 인물도상적이고 그 판화에서 주가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인물도상들이었다.

오운이 그리는 인간의 도상은 본질적으로 풍속화와 풍자화의 전통에 근간해 있다.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거

우리글 바로 압시다

많이 쓰는 한자말도 더 많은 우리말로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한자말이라도 순수한 우리말이 있으면 한자말을 펴고 순수한 우리말을 쓰도록 하자. 그 까닭은 우리말이 더욱 부드럽고 아름답게 꾸러져서 들렸을 때나 글자로 썼을 때 더욱 알기 쉽기 때문이다.

대화에 적합한 모 체벌 모-어는

노동층의 기업을 도산내지 않으려는 내자-시키기

적전제가 편입된 이시점에서

시점에서-매에

피차간에 즐거운 생활이 되도록

피차간에-서로

매사에 자신감을 갖도록 매사에-일마다

외부에서 일견하기에-밖에서 얼핏 보기에

가우주-집주인

나 역시 그런 감이 났다 감-느낌

상시 대표하고 있습니다 상시 대표하고-연계든지 표를 팔고

본인의 양심에 입각해서 입각해서-따라서

5공 청문회 내일 재계 재계-다시 열어

상당한 예로 예로-아무리

이날 부락에서 풍물복 착복을 했다 풍물복 착복식-풍물복 입기 라는

예시

국민참여 미흡 미흡-모자라

우리민족의 지력을 유감없이 발휘

지력-숨은 힘 발휘-드러내

계시판은 학생들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의식을 각성시키는-생각을 깨우치는 장-저리

9일간의 농성에 돌입했다 돌입했다-들어갔다

기업주들의 기만성을 갈파하고

기만성을 갈파하고-속임수를 큰소리로 밝히고

모로 이 조국이 분란된 상황에서 기인한다는-상황에 원인이 있다는 형편 때문이

동국대학교 개교84주년 · 동대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제28회 전국 고교생백일장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전국 남녀 고교 문학도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문학의 새싹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28회 전국 고교생 문학 콩쿠르를 개최합니다.

특히 우수한 입상자에게 본교 입학후 장학금이 지급되는 가장 권위 있고 전통있는 이 향연에 고교 문학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작품종목
(가) 시·시조: 2~3편
(나) 소 설: 50매 내외(200자 원고지)
(다) 수 필: 15매 내외(200자 원고지)

■응모요령
학교장(문예반 지도교사)이 추천한 작품을 본사에 제출.

■시상
(가) 각 종목별로 장원 1편, 우수작 2편, 가작 2~3편을 시상함.
(나) 1차 예선(원고심사)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함.

■장학금 지급
(가) 각 종목별 장원입상자(1등)가 본교 어문학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1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함.
(나) 각 종목별 우수작 입상자(2등)가 본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1년간 수업료 반액을 면제함.
(다) 재학생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는 총장장학금, 문예장학금 등을 졸업시까지 받을 수 있음.

■작품제출 기간: 1990년 4월 30일~5월 7일
■작품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26(우편번호 100-715)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쿨롱 1990년 3월 일

동대신문사

■학생수첩을 기다리는 동약의 일반 학우 여러분께 알립니다.

'민중총학'의 기치아래 제22대 총학생회가 출범한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학생수첩을 제작하지 못해 많은 학우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22대 총학생회로서는 수첩이 하루빨리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수첩제작기간 2주와 업무선정(공개입찰) 등의 절차상 문제로 5월14일쯤 배부예정으로 일사오니 학우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첩은 정확하게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해서 배포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2대 총학생회-

■서울대성고 동문회 체육대회

동약속에 우뚝 서있는 지성, 야성, 그리고 대성.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더불어 맘을 훌리고자 대성동문회에서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계: 5월13일 오전10시 어디서: 대성(서울)고등학교 운동장

■'출발' 창간을 축하합니다.

교육학과 교과과정 위원회의 '출발'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교육의 의미를 새기며, 교육과학을 사랑하는 900리미-

■전통혼례식 '사랑의 생'모집

경주캠페스 제4대동아리연합회(회장=이국중·KUSA)에서는 내달17일 녹야원에서 열릴 전통혼례식을 올릴 사랑의 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석한마당기간중에 열릴 이번 전통혼례식은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달26일부터 내달4일까지 동아리연합회에서 모집중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회학과 88학번 현정희와 인재형이 5월 그 첫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세계 노동자들의 생일인 May-day와 똑같은 생일인 두 분이 1년내내 노동자답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88은숙이가-

■남성고 총동문회 및 M-T

안건: 사진, M-T, 총동문회
연계: 5월4일
1차-3시: 도서관(선배님게인사)
2차-5시: 도서관(사진촬영)
3차-7시: 남성회관(전화: 582-3220~1)
(3호선 화룡터미널 하차, 서초동-강남부속상가-12동4층)
회비: 5천원(구좌번호: 012328-0052728
-11)

모집: 수학교육과 4년 김은주 미술학과 1년 정은주

■지지 합니다.

사범대 1학년 학우들이 벌이고 있는 등록금환불과 재단학신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끝까지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제22대 사범대 학생회-

■축하합니다.

오는 4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갖게되는 동덕여대 의류학과 작품발표회를 축하 합니다.

대학4년간 갈고 닦은 솜씨를 선보이게될 친구들의 노력에 박수를 아끼지 않으며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빕니다.

-영준, 광철, 권준-

■행운을 빕니다.

사랑하는 영화씨 / 5월27일 있을 시립예행운의 여신이 함께하길 빌었습니다.

-신은경-

동약광장은 전통악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주위의 일들에 대해 알고 싶은사람이 있다면 주저 말고 동대신문사 동약광장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동약광장에 실리는 광고는 광고료가 없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자대비의 평등사상 누리에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다채롭게 열려 제등행렬 - 대법회 - BBS 개국행사 - 학술세미나 등

부처님오신날 2534를 기념
대법회 및 제등행렬이 지난날
28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여의도광장에서는 오후
3시 '불교방송국(BBS) 개국기
념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6시에
는 본교생 3백여명을 포함한
10여만명의 인파가 참여한 가
운데 대법회가 예불, 범문낭독

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제
등행렬은 본교생들이 대형 白
象을 앞세우고 마포대교, 아현
동, 중로1가, 종각, 안국동조계
사에 이르는 총 8km 구간에 걸
쳐 진행되어 부처님 오신날 감
동을 기렸다.

이날 제등행렬 행사에는 사
부경찰 2백여명과 전경 1백여

명이 투입되었는데 본교생등
선두행렬이 아현동거리앞에서
'해제 민자강, 퇴진 노태우'를
외치자 경찰진부5명이 '국기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며 공권
력투입을 암시, 행렬을 중단시
키려하자 본교생3백여명은 제
자리에 앉아 평화시위를 하며
공권력투입에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날 제등행렬이 끝난 오후
10시경, 서울지역 10여개대학
학생들은 종로2가 조계사앞 해
산사에서 "우리의 단합된 힘으
로 민자강을 분쇄하자"며 결의
를 다졌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여의도 광장에서 '노경관타도'
를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을 시
민에게 배포하다 이계열(야간-
영문2)군을 비롯한 본교생7명
이 연행되었으나 이날 늦게 귀
가조치 됐다.

불교서적판매 '심우장' 개장

불교대 '북한바로알기운동' 전개키로
'불교대학 학생총회 및 심우
장개장식'이 지난날 27일 오후
12시30분 학생1백50여명이 참
가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
렸다.

불대기회부장 황승기(불교
3)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
회에서는 사물함설치, 불대학
생활실의 조영시설행, 역경
원장고의 공간확보와 이용, 심
우장운영, 각학년 운영위정학
등을 결의했다. 또 각과별로

북한바로알기운동 전개키로

'북한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여
묘향산 보원사-금강산 유적사
의 불적조사, 김형직사범대학
과의 불교학 교류방문, 제등행
렬참여, 노동절 동맹휴업등의
인연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3시부터는 불교서적을
판매 하는 심우장 개장식에 나
태호(인도철학)교수와 학생대
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테
이프를 끊고 풍물놀이 등을 가
졌다.

금년도 총예산 3백22억여원

등록금 의존도 82%... 동국관 증축·기초과학센터 건립

본교 '90년도 학교비 및 기
성회비 자금운용예산'이 지난
달 24일 최종 확정됐다.

총3백22억7천8백18만8천원
의 예산중 수입내역을 살펴보
면 학생 '납입금'이 2백96억1천
1백34만8천원으로 전체 수입예
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속병원과 전산원 및 계단전
입금포함 '전입기부금'이 23억96

천1백만원, 각종시설물과 실습
기기의 임대료등으로 들어온
기부금예산수입이 5천2백만원이
며 지난해 기부금 입학액도 전
체 예산의 5%인 14억5천9백5
십만원이 계획됨에따라 수입내
역으로 책정되었다.

이와함께 본 예산의 지출내
역으로는 인건비가 1백77억1천
4백82만2천원으로 총지출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경비는 15%인 49억6백75만9
천원, 유형교정자산매입비는
29억8천6백71만2천원으로 전
체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유형교정자산매입비의
세부내용은 서울캠퍼스의 동
국관증축과 농과대 실습기자재
확충, 경주캠퍼스의 기성 기초
과학센터건립, 경주시 노서동

교원숙소 신축, 경주 전산과
정보관리학과 신설학과의 컴
퓨터시설확충등이 포함되어 있
다. 서울캠퍼스의 동국관증축
은 동국관(L건물) 1층 증축
(541평 규모)공사로 95억원이
확정됐으며 농과대 실습기자재
확충은 지난해 학교측과 합의
했던 5개년계획에 의거, 올해
연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경주캠퍼스의 기성 기
초과학센터건립은 총2천5백평
규모로 약20억이 책정되었고
경주 교원숙소의 경우는 현재
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데 약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
다.

○90년도 학교비 및 기성회비 운용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계정과목	수입부		지출부				
	교비	기성회비	교비	기성회비			
납입금	19,123,482	7,487,896	26,611,348	인건비	13,546,844	4,167,978	17,714,822
수수료	677,000		677,000	관리운영비	2,677,800		2,677,800
전입기부금	2,361,000		2,361,000	학생경비	4,061,977	844,776	4,906,753
기부금예산수입	52,000		52,000	임시판리비	640,100		640,100
사입수입	300,200		300,000	연구비	776,740	1,533,600	2,310,340
기타수입	627,240	50,000	677,240	기타경비	213,169		213,169
투자자산수입	100		100	에비비	180,000	76,000	256,000
계정당금입금	1,459,500	140,000	1,599,500	투자자산지출	11,000		11,000
				유형교정자산매입	1,931,200	1,065,512	2,996,712
				유형교정자산매입	100		100
				고정부채상환	471,392		471,392
				특별예금지출	110,000		110,000
계	24,600,322	7,677,896	32,278,188	계	24,600,322	7,677,896	32,278,188



부처님 오신날 2534를 기념 제등행렬이 지난날 28일 여의도-아현동-종각-조계사에 이르는 8km 구간에서 열렸다.

대총 정기총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

출석자만 가져 중앙위서 예산분배·총학집행부 인준
서울캠퍼스 '제22대총대의원
회 출범식 및 정기총회'가 지난
달 26일 오후 5시 중앙당에서
열렸으나 정족수 미달로 정기
총회는 무산되고 의정인사와
중앙위 소개만을 가졌다.

이날 대총회장 안성준(국문
4)군은 인사말에서 대총의 위
상과 역할을 밝히며 "대총의
올바른 사업진행을 위한 주체
적 참여와 대의원들은 학생회
의 올바른 진행을 위해 고민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예산분배
과 총학집행부인준등을 의결
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1백62
명중 52명만이 참석해 인준을
상정하지 못한채 대총중앙위로
넘겼다.

이에따라 대총에서는 오는 3
일 중앙위를 소집, 미포과된
안건을 인준시킬 예정이다.

한편 제22대 대총간사는 준
비미비등으로 당초 23일 예정
에서 지난 30일로 연기 됐다.

노조 임금 협상 일단락

경정예산에서 지급키로하는 시
행세에 합의했다.
이 시행세칙에 따라 본상 추
가 인상분은 7월과 2월, 2차에
걸쳐 지급된다.

등록금투쟁 완수결의
1학년 자협추위로
'등록금투쟁완수를 위한 투
쟁선언서'가 지난날 26일 오후
3시30분 학생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학년 자치협의회 주최
로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자협 기획부장 김현수(사회
1)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선
포식에서 자협위원장 신현수(야
간-경제1)군은 인사말을 통해
"반동계단전진, 개악사범학교
법침"등을 주장했다.

이날 학생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학교당국과 재단측의 기
만적인 술수에 능률 당할 수
없다"며 학교당국과의 대화와
재단전입금확보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을 마친 학
생들은 본관 법선사무처 접기
를 불상앞으로 끌어냈다.

김성규前회장 집행유예 2년

이세용군 징역 1년 선고받아
지난달 12월22일 중부서사복
경찰의 학내단속시 연행돼 수
감중이던 제21대총학생회장 김
성규(사학4)군이 지난날 17일
결심판공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42호 법정에서 열
린 이번 공판에서 김군은 국보

경찰간부후보생

본교생 14명 배출
'제38기 경찰간부후보생 출
업식'에서 본교 경찰행정학과
출생생 14명이 경찰간부후보생
로 선발됐다.

지난날18일 인천 경찰총합학
교에서 있었던 졸업식에서도 고
기철(90년출)동문은 영예의 학
교장상을 수상했다.

앞에는 하나같이 '왜곡 또
왜곡'
"이제 울산현대중공업은
파업이 안정태고 있다"는
기사 보도내용은 파업이 진
입받지 않음에 비해 실지 모르
나 전대협-전노협-전국
올라간 시스템은 대대적인
가두시위와 동
동자들의 항거
가 계속되고 있
다고 일관.
진실을 보도
하는 것이 언론
사의 막중한 임
무일전대 독재정권에 기생하
며 同病相憐하는 제도언론의
현상파업 보도 양태를 보며
본회전대대 "판-언론 할것
없이 풀러잇(?)파면방을
보이는 가운데 다행의 용병
술은 참언론 진실보도와 비

교되지 않을런지?
6공 오리발 따붙!
○'제작년 여의도에' 개설
된 공개 청문회장에서 대히
트(?)시킨 오리발때가 쵸
근 여의도 KBS반정에서 또
다시 히트하며 사람들의 주
목을 끌었다.

KBS 파업이
후 공권력
이 배달(?)될
것 이라고 최
주방장이 말한
이후 '대통령
사'라고 자칭한

받은 6공 오리발이 따붙이라
나."
체르노빌 후유증
○'투파야' 소동으로 세
상을 놀라게한 영광에서 5km
떨어진 교창군에서도 기현상
이 속출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데.

2년전부터 어패류가 집단
폐사 하는가 하면, 흰문없는
송아지, 귀가 4개에 앞발이
한개뿐인 송아지, 다리가 셋
인 강아지가 자주 태어나
'체르노빌의 후유증'과 너무
나 흡사하다는 것.

울산 현중 파업 보도 양태는 하나같이 '왜곡 또 왜곡'
진 채 무원칙한 점거 전성시
대의 향연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곡 또 왜곡...
○'공권력이 판치는 세상
에 울산 현대중공업 파업사
태와 판권, 제도언론의 보도

김용갑 前총무처장관이
'KBS정상화'협상이후 '개인
자격'으로 협상했다고 오리
발을 내밀며 노조원의 분노
를 사더니 거이로 배달된 공
권력에는 혀를 찰수밖에.
이를 지켜본 박하우 "오리

우리들 세계속에서 정장의 개념은 다르다. 엑스게이트

언제 어디서나
자신있는 모습으로
신선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남자.
그들의 절제하는 생활 속에는
모두를 주목하게 하는
자유와 진취성이 있다.
젊은 남자의 정장 세계
엑스게이트

**X-GATE
FOR MEN**

주: 캠퍼리지 - 캠퍼스 서비스 시애틀구 서드문 1461-15 캠퍼지빌딩-우편번호 137-071-전화: 2-586-0303
 서울: 동구 명동2가18-1 동명빌딩 1003호 779-1903-4, 779-1903-4, 779-0790, 796-2491
 부산: 동구 대동1가11-1 동명빌딩 1114호 779-1903-4, 779-1903-4, 779-0790, 796-2491
 대구: 동구 동명2가11-1 동명빌딩 1114호 779-1903-4, 779-1903-4, 779-0790, 796-2491
 대전: 동구 동명2가11-1 동명빌딩 1114호 779-1903-4, 779-1903-4, 779-0790, 796-2491
 광주: 동구 동명2가11-1 동명빌딩 1114호 779-1903-4, 779-1903-4, 779-0790, 796-2491
 울산: 동구 동명2가11-1 동명빌딩 1114호 779-1903-4, 779-1903-4, 779-0790, 796-2491
 인천: 동구 동명2가11-1 동명빌딩 1114호 779-1903-4, 779-1903-4, 779-0790, 796-2491
 서울: 동구 동명2가11-1 동명빌딩 1114호 779-1903-4, 779-1903-4, 779-0790, 796-2491
 부산: 동구 동명2가11-1 동명빌딩 1114호 779-1903-4, 779-1903-4, 779-0790, 796-2491
 대구: 동구 동명2가11-1 동명빌딩 1114호 779-1903-4, 779-1903-4, 779-0790, 796-2491
 대전: 동구 동명2가11-1 동명빌딩 1114호 779-1903-4, 779-1903-4, 779-0790, 796-2491
 광주: 동구 동명2가11-1 동명빌딩 1114호 779-1903-4, 779-1903-4, 779-0790, 796-2491
 울산: 동구 동명2가11-1 동명빌딩 1114호 779-1903-4, 779-1903-4, 779-0790, 796-2491

